

전매광장



박문옥

전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난 6월 3일,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마무리되며 이재명 후보가 17,287,513표(49.42%)를 득표해 역대 최대 득표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갈등 해소 노력 절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정책과 비전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어졌으며 특히 각종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들이 사회 전반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국민은 통합의 6·3을 희망한다

이처럼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선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 보인다.

이러한 바람에 호응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국회대로에서 열린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다른 색 옷을 입어도 모두 대한민국인, 함께 가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각각의 이념에 갇혀 공정한 선거를 부정하거나 정치적 불신을 조장하며 갈등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결단이 담긴 민주적 주권 행사였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야

앞으로는 좌우의 이념 대립을 넘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의지와 가치가 사회 통합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시설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대통령 되길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 첫째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무너져내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이제 대한민국호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불의를 끝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산더미다.

대한민국이 오십보 백보 뒤로 후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다. 국민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책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이 이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그러면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에세이



김한호

문학박사·수필가·문학평론가

개똥벌레는 반딧불이이다. 같은 벌레인데도 부르는 이름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다. 개똥벌레는 개똥에서 비천하게 산다고 개똥벌레라고 부른다.

반딧불이는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려는 듯이 밤하늘에 등불을 켜고 소리 없이 날아다닌다. 반딧불이가 반짝이는 것은 쫄무늬에 발광기가 있어 짝짓기를 하기 위해 생체 발광으로 열이 없는 빛을 내기 때문이다.

반딧불이는 전 세계에 2000여 종이 있다. 예전에 해외여행 때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본 반딧불이는 환상적이었다.

노래하는 개똥벌레

주군 설천면의 반딧불이 서식처는 천연기념물로 '무주 반딧불 축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에 선정됐다.

풀벌레들이 노래할 때 개똥벌레는 노래하지 않는다. '개똥벌레' 노래는 가수 신형원이 1987년 2집 음반에 발표했다.

'개똥벌레' 노랫말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개똥벌레' 노래가 유행하던 무렵에 완도 외딴 섬에서 중학교 선생을 할 때였다.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며 가도록 했다.

황가람이 2024년에 리메이크한 '나는 반딧

불'이라는 노래가 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벌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 물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황가람은 20년이나 무명가수로 노숙생활을 하던 40살의 개똥벌레였다. 그런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다.

유행가는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며, 많은 사람들이 노래한 인기가요는 세월이 흘러도 추억 속에 남아 있다.

이제 '개똥벌레' 노래는 잊혀져가고, '나는 반딧불'을 노래하는 시대가 되었다.

광주전남 공약 이행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대한민국 국민,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민이 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이유는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수십 년 계속돼온 광주전남의 정치적

광주전남 시·도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광주전남이 이제야 비로소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이 가득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 관련 주요 공약은 광주·경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국가 주도 민군공항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구축,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3.0시대 실현,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관련 공약이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각종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독자투고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친구나 교사 사진을 합성하는 게 청소년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빨리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공간, 강제추행 등 물리적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유포 등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신고 망설이지 말길

체로 큰 공포와 수치심, 불안이 유발한다. 특히 10대는 성 관념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로 정신적 피해가 크고 이에 대한 후유증도 오래간다.

우에는 절대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재복 고충경찰서 대서파출소장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세상



"제주서 스노클링 즐겨요"

4일 제주도 한림읍 판포포구를 찾은 관광객이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